곡성 친환경농산물 '역시 최고'

서울 강동구 5개 초등교에 학교급식 공급계약 체결

쌀·잡곡류 등 75t…郡, 단체·기업 등 판로 확대키로

전남산 친환경 농산물이 서울지역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되고 있다.

10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곡성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서울 강동구 고일초등학교 등 5개교에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되고 있다.

주요 품목은 쌀과 콩, 서리태 등 잡곡으로 총 75t의 물량을 1년간 공급하게 된다.

이번 공급된 쌀은 옥과면 황등쌀영농조합법인의 무농약 탑라이스단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20kg 1포당 5만1천750원에 공급된다.

곡성군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분기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해 주는 등 곡성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일번지로 인정받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농협 나주연합사업단에서 서울 용천초등학교와 선화예술 중·고등학교 등 5개교에 쌀 160t을 공급했으며, 장성 삼계농협 역시 쌀과 잡곡 10t을 서울지역에 공급했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지역에 공급된 물량은 쌀 242t, 잡곡 3t에 이르며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더욱 공급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곡성군 관계자는"곡성 농산물이 처음으로 서울시내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만큼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해 소비자 신뢰 구축은 물론 공급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각급기관과 단체, 기업 등으로 판로를 지속적으로 넓혀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하지 감자 심어요" 10일 순천시 송광면 한 들녘에서 감자 파종에 나선 농민들의 손놀림이 바쁘다. 하지 감자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심은 후 하지 무렵인 6월에 수확한다. /연합뉴스

관광할인쿠폰제·스토리텔링 상품·섬 관광자원 개발

'관광명품도시 여수' 프로젝트 박차

여수시가 관광 명품도시로서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2008 전남관광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한국관광공사 주관 관광 수용태세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서 세계 명품도시로의 탈바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시는 올해 주요 시책방향을 관광산업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남해안권 거점도시 성장토대 구축으로 삼고 있다.

눈에 띄는 시책으로는 관광할인쿠폰제 시행, 스토리텔링을 통한 상품개발, 체험형 축제 육성, 남해안 광역관광 코스 개발, 섬 관광자원 개발 등 테마가 있는 상품을 개발해 머물면서 추억을 담아가는 고품격 관광지 조성 등이다.

특히 여수 거북선대축제를 비롯한 7개 축제를 체험형 축제로 만들어 관광할인쿠폰제를 시행하는 등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스토리텔링을 통한 400리 탐방코스 및 이순신 순례코스, 남해안 광역관광코스를 개발해 시티투어 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사도·낭도는 생태의 섬, 거문도·백도는 역사·문화의 섬, 백야도는 가족·휴양의 섬, 상·하화도는 꽃의 섬으로 개발해 생태녹색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한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여수산단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야경 뷰 포인트 및 다도해 밤 바다를 유람선을 타고 야경을 즐기는 야간유람선을 운행해 이를 관광상품화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곡성군민의 상 추천 하세요"

곡성군은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2009 곡성군민의 상' 수상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979년 제정된 이 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하거나 애향심을 발휘해 모범이 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으로 본상 1명과 문화예술 및 교육, 사회복지 및 환경, 산업경제, 체육, 공공복리 등 5개 부문별 장려상 1명씩 등 총 6명을 수상자로 뽑는다.

군민의 상 후보는 각급 기관단체장과 읍면장, 또는 가구주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개인이 추천할 수 있다.

시상식은 오는 5월 1일 제29회 곡성군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순천 원도심 개발, 시민 여론 따라야"

시민단체 "활성화사업 찬성…시민포럼 구성하자"

순천 YMCA와 경실련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순천시가 중앙지하상가를 전용차도로 변경하고, 지상차도는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10일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시민참여가 담보되지 않은 시의 일방적 추진은 사업의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 시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가칭 '살기좋은 원도심 시민포럼'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순천시는 길이 250m 규모의 중앙지하상가를 편도 4차선으로 구조 변경해 전용차도로, 현재 편도 4차선(너비 25m)인 지상 차도는 녹지공간 등을 조성해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각각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상가에 입주해 있는 130여개 점포에 대한 이주비와 영업보상비 등 전용차도와 보행자 전용공간 조성비로 160억원을, 이 사업과 연계된 우회도로 조성 사업비(의료원로터리~남문교~남교 오거리, 총 길이 600m) 130억원, 주변지역 편의·지원시설 공사비 66억원 등 총 356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여수~경남 남해 뱃길 다시 열린다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을 연결하는 뱃길이 다시 열린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온바다해운(대표 반두현)이 2004년 8월부터 한 달여 간 운항했다가 중단됐던 남해 서면 서상항~여수항 항로에 이달 안으로 카페리 여객선 '온바다호'를 재취항한다.

온바다호(71t)는 여수항에서 각각 오전 8시와 오후 3시 두 차례 출발하며 50분간 운항해 서상항에 도착하면 승객을 태우고 귀항한다.

이 여객선에는 11대의 승용차와 55명의 인원이 동시에 승선할 수 있으며 요금은 편도에 일반인 1만원, 어린이는 5천원, 승용차는 2만원이다.

온바다해운측은 이날부터 시범운항을 거친 뒤 이달 중 취항식을 갖고 본격 운항에 나선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